

美 달 궤도 무인우주선 '오리온' 귀환

음속 32배로 대기권 진입, 2천800도 견디고 태평양 착수

2024년 유인 비행 이어 이르면 2025년 달 착륙 목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11일(현지시간)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 이로써 미국은 유인 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만의 인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NASA는 이날 오리온이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인근 태평양에 착수(着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오리온의 귀환은 지난달 16일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 25일 만으로,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11일 달 표면에 도착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에 이뤄졌다.

미 해군 함정과 헬리콥터, 소형 보트 등은 오리온 착수 시간에 맞춰 회수 작업에 나섰다.

오리온은 이날 음속의 32배인 시속 2만5천 마일(약 4만km)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다.

새로운 첨단 방열판을 장착한 이 우주선은 대기권 통과 시 태양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천800도를 견뎌낸 뒤 낙하산을 펴고 해수면에 도달했다.

NASA는 오리온의 하강과 착수 과정이 완벽에 가까웠다고 자평했다.

오리온의 대기권 진입은 이번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새 방열판이 향후 유인 비행에서 우주비행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리온은 이번 비행에서 실제 우주비행사를 본떠 인체와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진 마네킹을 태웠고, 장비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앞서 오리온은 궤도 비행 중 달 표면 80마일(약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다.

또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현재까지 지구에서 가장 원거리 비행인 26만8천 마일(43만2천km) 지점 도 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NASA는 아르테미스 I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아르테미스 II)에 도전한다.

이어 이르면 2025년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III 임무에 착수한다.

NASA는 이를 통해 우주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심(深)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 궁극적으로 화성 유인 탐사에 활용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아르테미스 I 임무 완수와 관련해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심우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했다. 사진은 낙하산을 펼쳐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인근 태평양 해상에 착수(着水)하는 오리온 모습. /AP=연합뉴스

멕시코 초등학교에 주민 모아놓고 충격 학살

멕시코 남부에서 무장 괴한들이 주민들을 초등학교에 모아 놓고 충격을 해 미성년자 1명 포함, 7명을 살해했다.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와 엘우니베르살, 엘수르데아카폴코 등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2시에 게레로 주 코유카테카탈란 시 엘두라스노 마을에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마을을 돌며 우리를 한 초등학교에 불러 모은 뒤 마구잡이로 총을 쏘다"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했다. 시민에 대한 무차별 충격으로 초등학교 안팎에서 모두 7명이 숨졌다. 그중 1명은 11살 미성년자라고 치안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강단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계속된 치안 불안에도 게레로 주 정부에서 방관으로 일관하다 참극을 키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해양 생물 9%, 1천550여종 멸종위기"

41%는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에서 오염에 이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 생물의 9%인 1천55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위협받는 해양 생물의 최소 41%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A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최신 멸종위기 종 적색목록(Red List)을 인용, IUCN이 분석한 1만7천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1천55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크레이그 힐튼-테일러 IUCN 적색목록 책임자는 "물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볼 수 없어 생물종 분석은 수중 상태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며 "이 결과는 우리가 해양 생물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분석된 종들은 널리 퍼져 있어서 멸종 위험을 받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멸종에 직면한 해양 생물 종 비율은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구 상에 단 두 마리만 남은 케냐의 북부원코뿔소 모녀 나진과 파루.

'북부원코뿔소' 멸종 문턱서 실낱 희망

지구 상에 모녀 단 두 마리만 남은 북부원코뿔소가 멸종의 문턱을 넘지 않고 개체를 복원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되살렸다.

독일 라이프니츠 동물원 및 야생 동물 연구소(IZW)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대학의 하야시 마사후미 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북부원코뿔소의 피부조직에서 배양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에서 난자와 정자로 발전할 '원시생식세포'와 같은 세포(PGCLCs)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발표했다.

PGCLCs는 지난 2016년 쥐에서 처음

만들어져 건강한 2세를 얻는 데 성공한 적은 있으나 코뿔소처럼 대형 포유류에서는 처음이다.

연구팀이 PGCLCs를 이용해 인공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만 넘어 서면 북부원코뿔소는 개체 수를 늘려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북부원코뿔소를 멸종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바이오레스큐'(BioRescue) 과학자들은 이미 자연 난자와 정자를 활용한 시험관 수정을 통해 북부원코뿔소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구대국' 인니·나이지리아, 2050년 韓 경제 추월"

골드만삭스, 저출산 한국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전망

20여 년 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면서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대인 세계 인구증가율은 2075년이 되면 0%에 가깝게 줄어든 전망이다.

올해 브라질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예측되는 한국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로 뛰어오르고,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경제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브라질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예측되는 한국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로 뛰어오르고,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필리핀의 경제 규모도 2075년에는 세계 14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는 한국은 2050년대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75년의 1인당 실질 GDP는 10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바이든과 전화통화 "전례없는 도움 감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올해 2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은 이래 미국이 제공 중인 도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전례없는 국방과 재정 원조에 감사의 뜻을 밝

혔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원조가 "전쟁터에서의 성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경제의 안정성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또 한 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

을 복구하기 위해 제공 중인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은 10월부터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무인기) 공격을 퍼부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으며, 겨울에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에게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일본 의욕기기인증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무직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P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무직성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